

북스

Books

정치범 재판, 승자의 파워게임

인저스티스

브라이언 해리스 지음·이보경 옮김

독일 나치 전범과 유대인 학살 관여자들에 대한 연합국 측의 국제군사재판이었던 '뉘른베르크 재판'(1945년 10월부터 218일간 진행되었다) 게슈타포를 창설한 헤르만 괴링 등 1급 전범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이 재판은 상식과 통념으로 보면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injustice)를 응징한 심판이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영국 출신 변호사로서 형사 재판에 오랜 경력을 쌓아온 브라이언 해리스가 쓴 '인저스티스'는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소크라테스 재판부터 1951년 미국 로젠버그 간첩사건 재판까지 '부당한 재판'이라 인식할만한 세기의 정치범 재판 13건을 꼽아 '법리적 시각'으로 분석했다.

책은 '부정' 또는 '불의'가 발생한, 즉 무고한 사람이 유죄를 받거나 유죄판결에 적어도 '합리적 의혹'이 존재하는 악명높은 재판들을 탐구하며 그 재판이 '공정했는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죄인가, 무죄인가'라는 질문까지 과감히 던진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법정을 보자. 저자는 나치 전범이 저지른 가혹한 범죄를 응징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뉘른베르크 재판이 당시 법률에 정해지지 않았던 평화에 대한 범죄와 반인류 범죄를 피고인들에게 소급 적용했다고 비판한다.

인간의 사악함도 '발전'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형법 조항을 만들어 응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새로운 형법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피고인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괴링, 헤스, 리벤트로프, 카이델, 칼덴브루너, 로젠베르크, 프랑크, 프리크, 슈트라이허, 폰크, 사흐트. <열대림 제공>

저자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소련 측 재판관, 그것도 스탈린의 선전용 재판에나 참여했던 이들과 나치 재판관이 재판정에 포함됐다는 것도 '승자의 정의' 즉 '불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외에도 뱀 제독, 영국 왕 찰스 1세, 리컨 암살범 존 윌크스 부스, 노동조합의 등불로 평가받는 톨버트 순교자들, 아나키스트였던 사코와 반첸티, 왼쪽 기밀간첩 로젠버그 부부, 대법관 토머스 모어, 과학자 갈릴레오 등을 역사를 되돌려 다시 법정에서 세운다.

저자가 작업에서 가진 문제의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해야 할 법정에서 왜 끊임없이 '불의'가 발생하는가. 이러한 '불의'를 가능하게 하는 무엇인가"였다.

그가 내린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바로 '권력'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악명 높은 재판 사례들을 통해 권

력자 또는 국가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대상을 어떻게 회색시켰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가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파헤치고 있다.

책의 부제를 '세기의 정치범 재판'이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자는 책에서 '정치범 재판'을 국가·권력자가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

저자는 마치 법정 드라마를 보여주듯 역사 속 재판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쓰고 있어 까다로운 법률 용어를 쓰거나 법의 정당성에 대한 교훈을 늘어놓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주로 나열하고 있는 탓에 지나친 맛추기나 음모론이 아닌가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

〈열대림·2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길을 묻는 철학자=서극대 철학과 임정식 교수가 깊은 성찰과 섬세하고도 열정 어린 필치로 써내려간 삶에 관한 철학 에세이다. 저자가 만지고, 듣고, 걸으며 일상에서 얻은 보석 같은 철학적 놀라움을 토로하고 있다. 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47편의 짧은 글들을 모아 무수한 갈림길 양에 놓여 있는 현대인들을 위로하고, 참된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문학과학사·1만원>

▲엄마 달인은EBS 육아프로그램 '60분 부모'의 방송작가로 5년간 일한 정재은씨가 미술, 놀이, 영어, 생애, 성교육 등 분야별 육아고수 여섯 엄마들의 양육비법을 소개한다. 여섯 명의 엄마달인들이 들려주는 감호의 지혜의 공통점은 '자기주도 양육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육아에서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닌 진실이라는 저자의 메시지가 인상 깊다. <북하우스·1만2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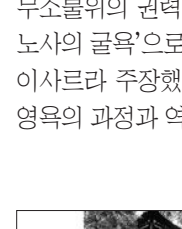
▲유패한 기억의 심리학=유패한 심리학'등 한국 심리학회 이아기꾼 박지영씨가 낸 심리학 이문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인 '인간의 기억과 망각'에 관한 이야기를 일상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 사례를 가지고 재미있게 풀었다. 처음에 답을 제대로 골랐다가 나중에 틀린 답을 선택하게 된 것은 자기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안다는 사실 자체는 잘 모르기 때문(암묵기억)이라고 설명한다. <너머북스·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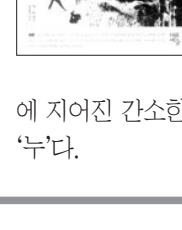
▲그레이트브룩=전세계 판타지 팬들의 사랑을 함몰에 받고 있는 작가 닐 게이먼의 최신작. 8개의 장과 각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험심 많은 묘지소년 '노바디'의 이야기를 담은 성장소설이다. 주인공 '노바디'가 암살자를 피해 유령들로 가득한 묘지로 들어가 유령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15살까지 성장하고 묘지 밖 세상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노블마인·1만2천원>



▲교황들-히틀러 땅의 지배자=로마를 세계의 중심에 두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문명적 교황 8인을 집중 조명했다.'카노사의 굴욕'으로 왕권을 굴복시킨 그레고리오 7세, 자신을 제2의 카이사르라 주장했던 '군사 교황' 율리오 2세 등 숨 가쁘게 전개되는 영웅의 과정과 역사의 현장을 실감나게 묘사했다. <동화출판사·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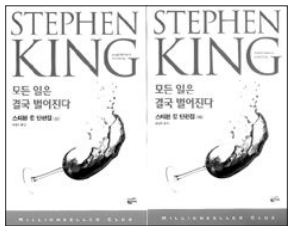
▲선비, 마음을 다스리다-한국의 누와 정=한국의 정원을 통해 조상의 아름다운 정원과 그 속에 깃든 미의식을 살펴봤던 한국민예미술연구소 허균소장이 이번에는 고즈넉한 산수풍경 속에 단아하게 틀어선 누각과 정자를 통해 선비들의 정신을 되돌아본다. 누각의 식영등 등 건국의 누(樓)와 정(亭)중 선 곳을 선별해 실었다.자연 속 <디른세상·2만8천원>



에 이어진 간소한 구조의 목조건물이 '정'이고, 이중 구조로 된 것이 '누'다. <디른세상·2만8천원>

모든 일은 결국 벌어진다

스티븐 킹 단편집



공포 소설의 가장 스티븐 킹의 단편집 '모든 일은 결국 벌어진다' 상, 하권이 밀리언셀러 클럽 100권 돌파 기념작으로 출간됐다.

오 헨리 문학상 수상작 '검은 정장의 악마'를 비롯해 14편의 단편집이 수록되어 있다. 스티븐 킹의 대표작인 '다크 타워' 시리즈의 '외전', 영화 '1408'의 원작, E-북으로 첫선을 보여 화제가 되었던 '총알차 타기' 등도 실렸다.

수목작품은 공포 외에도 환상, SF, 추리 등 폭넓은 장르를 소화하고 있다. <황금가지·상권 1만1천원, 하권 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

기발한 세계일주 레이스

스티브 헨리 지음·권성환 옮김

하버드대 출신으로 현재 할리우드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동기동창 스티브와 벨리는 어느 날 기상천외한 내기를 한다. 한 명은 서쪽으로 다른 한 명은 동쪽으로 출발하여 먼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오는 사람이 최고급 위스키를 차지하는 것이다. 단 비행기는 '절대로' 타지 않고 오직 육로와 해상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한 스폰서도 구했다. 책을 내는 조건으로 출판사가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 그래서 이들 경주엔 한 가지가 추가된다. 상대보다 더 멋진 경험을 하고 돌아올 것.

이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기발한 세계일주 레

하버드 피자들 5대륙·24개국 코믹 여행기

스'이다. 5개월에 걸친 이들의 여행담은 유쾌하고 흥미진진하며 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웃음을 멈추기 어렵다.

서쪽으로 출발한 스티브는 특이하게도 부산을 최초의 여행지로 선택했으며, 동쪽으로 떠난 벨리는 자동차를 타고 멕시코를 가로질러 브라질로 향한다. 이들은 각자 중국, 몽골, 올란바토르, 런던,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 카이로, 북유럽, 팔레스타인, 이탈리아, 두바이, 파리, 캄보디아, 상하이를 거쳐 미국으로 돌아와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돌아본다.

하물선 한진아미세호를 타고 대령양을 횡단하고, 세그웨이를 타고 파리 시내를 누비고, 브라질 낙서조지 폭력배들과 우정을 나누고, 팔레스타인에서 감금(?)되고, 노인들과 함께 대서양을 항해하고, 사해에서 밤 해수욕을 즐기고, 두바이의 초현실적인 건

축물들에 놀라고, 상해에서 경극을 관람하다 점심으로 먹은 베이징덕 요리를 게워내는 등 스티브와 벨리의 기상천외한 여행은 상식과 금기를 뛰어넘는다.

책은 지구촌 5대륙, 24개국을 헤집고 다니면서 각각의 문명과 문화, 인종들을 관찰하며 해학과 풍자를 담아 묘사했다. 또 미국 명대하 출신 젊은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현대성'에 대한 동정과 비판이 배어 있는 유머가 책 곳곳에 담겨 있다.

지원받은 경비와 협찬 물품으로 가득 찬 이들의 여정은 상업적이며, 미국적 시각의 편협함이 다소 거북스럽다. 그럼에도, 멋진 경험을 찾아 떠나는 열정과 끝까지 재기를 잃지 않는 긍정적인 모습은 그런 단점을 충분히 덮어 준다.

〈중앙books·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구	소	지	면적	건	회
영광군	소제지	지	1178/357	18	7900
영광군	소제지	지	1990/392	19	1900
영광군	소제지	지	227/284	13	1300
영광군	소제지	지	3720/1125	28	2800
영광군	소제지	지	3000/907	28	2800
영광군	소제지	지	433/135	3	3000
영광군	소제지	지	1450/438	18	1800
영광군	소제지	지	2920/811	13	1300
영광군	소제지	지	4000/1452	34	3400
영광군	소제지	지	2608/276	7	7000
영광군	소제지	지	7320/215	12	1200
영광군	소제지	지	2478/748	8	8000
영광군	소제지	지	471/143	8	8000
영광군	소제지	지	2517/781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2853/1114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5111/1548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2238/888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1290/262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658/258	5	5000
영광군	소제지	지	1897/518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2098/838	3	3000
영광군	소제지	지	3248/981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3718/1124	4	4000
영광군	소제지	지	2102/837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2803/947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2558/886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881/502	9	9000
영광군	소제지	지	3080/782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2322/782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2900/896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2485/754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11850/3594	9	9000
영광군	소제지	지	1227/372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4628/1389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1333/854	8	8000
영광군	소제지	지	3088/1158	4	4000
영광군	소제지	지	2454/777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3197/887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1107/234	3	3000
영광군	소제지	지	4375/1323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4824/1398	4	4000
영광군	소제지	지	4504/1382	3	3000
영광군	소제지	지	1484/442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702/2308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5373/1662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13205/4598	10	10000
영광군	소제지	지	2281/880	4	4000
영광군	소제지	지	2367/1085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2823/745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615/488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591/454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2140/648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333/854	8	8000
영광군	소제지	지	3254/777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3197/887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1107/234	3	3000
영광군	소제지	지	4375/1323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4824/1398	4	4000
영광군	소제지	지	4504/1382	3	3000
영광군	소제지	지	1484/442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702/2308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5373/1662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13205/4598	10	10000
영광군	소제지	지	2281/880	4	4000
영광군	소제지	지	2367/1085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2823/745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615/488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591/454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2140/648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333/854	8	8000
영광군	소제지	지	3254/777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3197/887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1107/234	3	3000
영광군	소제지	지	4375/1323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4824/1398	4	4000
영광군	소제지	지	4504/1382	3	3000
영광군	소제지	지	1484/442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702/2308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5373/1662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13205/4598	10	10000
영광군	소제지	지	2281/880	4	4000
영광군	소제지	지	2367/1085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2823/745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615/488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591/454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2140/648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333/854	8	8000
영광군	소제지	지	3254/777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3197/887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1107/234	3	3000
영광군	소제지	지	4375/1323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4824/1398	4	4000
영광군	소제지	지	4504/1382	3	3000
영광군	소제지	지	1484/442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702/2308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5373/1662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13205/4598	10	10000
영광군	소제지	지	2281/880	4	4000
영광군	소제지	지	2367/1085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2823/745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615/488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591/454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2140/648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333/854	8	8000
영광군	소제지	지	3254/777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3197/887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1107/234	3	3000
영광군	소제지	지	4375/1323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4824/1398	4	4000
영광군	소제지	지	4504/1382	3	3000
영광군	소제지	지	1484/442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702/2308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5373/1662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13205/4598	10	10000
영광군	소제지	지	2281/880	4	4000
영광군	소제지	지	2367/1085	2	2000
영광군	소제지	지	2823/745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615/488	1	1000
영광군	소제지	지	1591/454	1	1000
영광군	소제지				